

1. 의문사 + to부정사

- 1) 「의문사+to 부정사」는 ‘~해야 할지’라는 의미로 「의문사+주어+ should+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2) 「의문사+to 부정사」 표현은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처럼 쓰일 수 있고, 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3) ex) Tell me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줘)
= Tell me what I should do.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The transition from the film camera to the digital camera has changed our idea about **what to take pictures of**.

- ✓ what to take picture of(무엇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가 문장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what we should take pictures of"로 대체 가능하다.

<해석> 필름 카메라로부터 디지털 카메라로의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사진 찍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변화시켰다.

2. 복합관계부사절

- 1) 복합관계부사는 「whenever / wherever / however+주어+동사」의 형태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 2) 복합관계부사절은 주로 문장의 앞이나 뒤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 3) whenever(언제든) whatever(무엇이든) however(어떻게든)처럼 맥락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낸다는 표현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Nowadays, **whenever we want to take a picture**, our camera is already in our hand, in our smartphone.

- ✓ 복합관계부사 whenever이 이끄는 복합관계부사절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며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언제든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no matter when we want to take a picture과 같다.

<해석> 오늘날, 우리가 사진 찍기를 원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의 손 안 스마트 폰에 카메라가 있다.

3.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

- 1) ‘주어 + 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의 문장구조를 5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 2) 5형식에서 사역동사가 쓰일 경우, “(목적어)가 (목적보어)하게 하다”라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맥락으로 쓰이면 목적보어로 주로 동사원형이 오며,
- 3) “(목적어)가 (목적보어) 당하게 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땐 목적보어로 과거완료 (p.p)형이 온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There may be some truth in that, but it cannot be denied that technology today has **made photography an essential part of our culture** and that it has altered the way people see the world.

- ✓ 종속절의 that절 안에서 make(사역동사) photography(목적어) an essential part of our culture(목적보어)이 사역동사의 5형식으로 쓰였다.

<해석> 거기에는 약간의 진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이 사진을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 1) While they are 2-1) hiding and 2-2) waiting for rescue, the enemy reassembles the torn pieces of the photographs 3) to find out 4) what the escapees look like.

1) 접속사 while

while이 문장의 처음에 쓰인 경우 ‘~하는 동안, ~하면서’와 같은 ‘동사’의 의미를 가진다.

cf. during : (전치사)~하는 동안, 내내

2) 현재분사의 병렬

현재진행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hiding과 waiting이 and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었다.

3)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to find out은 to부정사가 ‘~하기 위하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4) 간접의문문

의문문이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문장의 안에 나올 경우, 직접적으로 묻는 표현이 아닌

‘얼마나 ~한지’, ‘어떻게 ~한지’, ‘~가 어떤지’ 등 간접적인 의문의 의미를 가진다.

〈해석〉 그들이 숨어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적들은 도망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재조립한다.

★ To take pictures, photographers needed 1) not only a camera, but also film, 2) which they had to buy every time 3) they wanted to take another photograph.

1)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또한 (= B as well as A)

여기서는 A보다는 B를 더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이 구문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사의 수일치는 B에 맞춘다.

2)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кома 뒤에 사용되는 관계대명사는 주로 계속적 용법으로, 앞선 주절을 부연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는 which가 이끄는 관계대명사가 film에 대해 추가 설명하고 있다.

3) 관계부사 when의 생략

선행사 every time을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time일 때, 관계부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해석〉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들은 카메라 뿐 아니라 필름도 필요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또 다른 사진을 찍고 싶을 때마다 매번 사야 했다.

★ 1) It was important 2) to prepare carefully if a person was going to take a good photograph, because 3) it was nearly impossible 4) to change anything once the photograph 5) had been taken.

1) 가주어 it

주어가 너무 길어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을 대신 사용하였다.

2) 진주어

문장의 앞부분에서 진짜 주어는 to prepare carefully이다

3) 가주어 it

마찬가지로 문장의 뒷부분에서도 주어가 길기 때문에 가주어 it을 앞으로 보낸다.

4) 진주어

문장 뒷부분의 진짜 주어는 to change anything이다

5) 과거완료 수동태

과거보다 더 과거의 시제(대과거)를 가지면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had been p.p형태의 과거완료 수동태가 쓰였다.

〈해석〉 좋은 사진을 찍고자 하면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사진이 한 번 찍히면 이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 Moreover, the digital camera has 1)made 2-1)it astonishingly easy 2-2)to take photographs 3)by 4)making all the shooting processes automatic.

1)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

5형식 문장으로, make(사역동사) + it(목적어) + astonishingly easy(목적보어)는 “(가주어)를 ‘깜짝 놀랄 만큼 쉽게’하다”라고 해석된다.

여기서는 목적보어로 형용사 easy가 사용되었으며 astonishingly는 형용사 easy를 수식한다.

2)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to 부정사

문장의 진짜 목적어는 to take photographs이나, 목적어가 너무 길어 가목적어로 대신했다. 위의 5형식 문장에 대입하면 “사진을 찍는 것”을 ‘깜짝 놀랄 만큼 쉽게’ 하다”라고 해석된다.

3) by + 동명사

전치사 by와 동명사가 쓰여 전치사구로 활용된 경우, ‘~함으로써’라는 수단, 도구의 의미를 가진다.

4)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

5형식 문장으로, making(사역동사) + all the shooting processes(목적어) + automatic(목적보어)는 “모든 사진 찍는 과정을 ‘자동적으로’ 만든다”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목적보어는 형용사 automatic 이 사용되었다.

〈해석〉 심지어, 디지털 카메라는 찍는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사진 찍는 것을 놀랄 만큼 손쉽게 만들었다.

★ 1)By integrating the mobile phone and the camera, the smartphone 2)has further transformed 3)the way we use and think about photography.

1) by + 동명사

‘~함으로써’라는 수단의 의미

2) 현재완료

‘바뀌 놓았다’, ‘변화시켰다’는 의미에 현재완료를 사용해 ‘완료’의 용법을 강조한다.

3) the way + 주어 + 동사

‘~하는 방식’,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관계부사how가 생략되었다.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한다. (=the way in which)

〈해석〉 휴대 전화와 카메라를 통합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가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 Internationally, citizen journalism has 1)played a crucial role in 2)letting the world know the realities of major world events, 3)such as the earthquake in Haiti and the Arab Spring.

1) play a (crucial)role in~

~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다

2)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

‘~가 ...할 수 있게 하다’. 사역동사 let의 목적어로 the world, 목적보어로 동사원형인 know가 왔다.

3) such as

‘~와 같은’의 의미인 such as 뒤에 예시를 들어주며 major world events를 수식한다. such as의 뒤에는 명사 형태의 예시들이 온다.

〈해석〉 국제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은 세계가 아이티 대지진이나 아랍의 봄과 같은 주요한 세계 사건들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8년 11월 13일

2) 제작자 : 교육지대(주)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